

전남 대표 해조류 미역 작황 부진

고수온에 싹녹음현상 발생 생산량 최대 30% 감소

생미역 kg당 100원에서 올해는 150원까지 오를 듯

시설 초기 고수온 등으로 인해 도내 미역작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고흥 지소 등에 따르면 이달 하순 본격적인 수확을 앞두고 작황을 조사한 결과 수확량이 10~20%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36만여t에 달했던 전남지역 미역생산량은 올해는 30만t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도내 미역 생산량의 전국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미역 시설시기인 지난해 10~11월 해수온이 평년보다 2~3도 정도 높은 고수온으로 염채(잎)가 녹아내리

는 싹녹음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 양식어가들이 시설 면적의 10~20%를 보식(補植)하는 등 종자재와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했다. 그러나 재고량 부족과 전복먹이 수요 증가, 일본 원전 이후 수출 확대 등에 따라 생미역 가격대가 예년보다 30~50%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수원 고흥지소는 생미역 가격은 지난해 kg당 100원 안팎에서 올해는

130~150원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흥과 장흥 등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고수온이 유지되고 있는 데다 잔벌레와 옆새우 등 해적생물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생산량이 더 줄어줄 우려도 크다.

고흥지소 관계자는 "보통 3월 중순 이후 보이던 염채 녹음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며 "조류소통을 좋게 하거나 휴식 채취 등 어장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종기자 gjuj@



구례 우리밀 라면공장 4월 준공

ICOOP생협 사업연합회

자연 드림파크 본격 추진

오는 4월 구례에 우리밀 라면공장이 들어선다. 국내 대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인 (사)ICOOP생협 사업연합회는 지난해 6월 구례군과 용방농공단지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730억원 규모의 우리밀과 친환경 쌀 식품 가공 특화 단지인 '구례 자연드림파크'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은 용방면 죽정리 일원의 14만여㎡에 102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5월

용방 농공단지 조성을 완료했다. 사업연합회는 지난해 10월 '구례 자연드림파크' 가공식을 가진데 이어 같은해 12월 58억원 규모의 우리밀(친환경 쌀) 라면공장을 착공, 오는 4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연합회는 올해 모든 공장을 순차적으로 착공해 내년 상반기 중에 전체 15여개 기업의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친환경식품 가공시설을 견학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설치해 도시와 농촌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린투어'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ik5826@

고흥 우주과학관서 별자리 관측하세요

개관 1주년 특별프로그램

고흥 우주천문과학관은 개관 1주년을 맞아 오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6일간 우주·천체에 관심 있는 가족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달·별자리 관측 체험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흥군은 "지난해 2월 개관 이후 현재까지 3만여명의 관람객이 고흥 우주천문과학관을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 고흥 우주천문과학관은 그동안 '여름방학 가족천문학교' 운영 등 수회에 걸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천문과학에 관심 있는 방문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와 함께 고흥 우주천문과학관은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천체사진 공모전 입상작 20여점을 무료 임대해 '천체사진 전시회'를 함께 진행한다.

/동부취재본부=주각종기자 gjuj@

순천시·순천대·스틸플라워 인재육성 채용 협약

순천시와 순천대, (주)스틸플라워는 지난 17일 시청 회의실에서 기업 맞춤형 인재육성 및 채용을 위한 산·학·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스틸플라워와 순천대, 순천시는 상호 협력을 통해 기업 맞춤형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채용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활성화에 공동으로 노력하게 된다.

순천대는 인성과 리더십, 어학능력, 전공역량 등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로 양성한다.

순천시는 순천대에서 배출한 인재의 취업지원과 알선에 적극 협력하며, (주)스틸플라워는 순천대 출신 우수 인재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게 된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yjy@



한·중 문화교류단 삼진강 나들이
지난 19일 곡성을 방문한 한·중 태권도 문화교류단 관광객들이 삼진강 기차마을에서 레일바이크를 즐기고 있다. 이날 문화교류단은 장미공원과 삼진강 문화학교, 태안사 등지를 둘러봤다. <곡성군 제공>

포스코 김택 광양공장 설립 마찰

환경단체 '발암물질 시민건강위협' 신설 중단 촉구

광양제철 '사실왜곡 근거없는 무책임한 폭로 말라'

포스코 김택 광양공장 설립을 앞두고 포스코와 환경단체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광양만 녹색연합은 지난 20일 호소문에서 "포스코 김택 화학공장은 화학원료인 폴타르를 가공하면서 벤젠, 나프탈렌, 톨루엔 등 1급 발암물질을 발생시켜 시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며 공장 신설 중단을 촉구했다.

또 "도시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김택 공장설립 반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공장 신설을 저지하기 위한 반대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포스코 경영진 연인 반대운동과 청와대, 국무총리실, 정부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반대의견을 올리자"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이에 대해 광양제철 측은 한차원 높은 고도화 시설운영 및 환경관리를 통해 모든 공정이 안전하게 운영될 뿐 아니라 최첨단 환경오염 저감 생산설비를 갖춰 지역 환경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시킨다는 입장이다.

특히 녹색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신규사업 진출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없는 무책임한 폭로 행위"는 포스코의 명예훼손

및 경제발전의 저해 요소"라고 규정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동원 녹색연합 회장은 "김택 공장설립 준비는 포스코가 지역과 기업의 동반성장 및 상생에는 관심없는 대기업 임의 입증됐다"면서 "이제 지역사회의 심각한 환경문제에 대해 시민이 나설 때가 됐다"며 강경 대응을 피력했다.

광양제철 박찬훈 홍보팀장은 "지역 환경문제에 대해 지지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포스코 경영진 유포에 대해 알기알부하며 과격한 공격은 도를 넘은 행위"라며 "사실을 지나치게 왜곡하며 호소문 등을 계속 발표해 언론플레이 하는 것에 대한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4079@

전 북

동국사 석가여래삼존불상 '세상과 소통'

군산근대역사박물관 6월까지 유물기획 특별전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23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5000년만의 외출 - 세상과의 소통'이라는 주제로 동국사 소장 소조 석가여래삼존불상 복장유물 기획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에는 보물로 지정된 시주질, 후령통, 다라니 등 불상의 내부에 보관돼 있던 조선중기 경전 및 공예품 등 373점이 처음으로 선보인다.

또한 근대화 격동기 슬픈 사연을 고스란히 간직한 동국사의 변천사에 대한 영상물이 상영될 계획이다.

군산의 대표적인 근대 문화유산인 동국사는 일제강점기 일본 불교의 포

교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1909년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승려에 의해 '금강사'라는 이름으로 창건됐으며 8·15 광복 뒤 동국사로 이름이 바뀌었다.

복장유물은 지난 2007년 본존불로 안치된 석가여래삼존불상과 불상 안에서 발견됐으며 보물 제1718호로 지정됐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조상들의 종교관과 예술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널리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정읍시 내장 단풍 명품화 나섰다

생육환경·유전형질 등 분석 보전대책 강구

벽련암 단풍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신청도

정읍시는 올해부터 내장단풍 명품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정읍시는 "'내장단풍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학술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이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시는 내장단풍의 모수(母樹)를 지정해서 개재 양묘와 보급사업을 전개하고, 오색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 벽련암 단풍나무에 대한 천연기념물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국내 최고령(350년 이상 추정)의

단풍나무 생육을 위해 외과수술을 하고, 단풍나무 군락지 주변 덩굴류도 제거한다.

오색단풍의 진수인 내장산 일주문~내장사 단풍터널의 단풍나무(108그루)의 생육환경을 조사하고 보전대책을 강구한다.

또 '내장산 단풍 100리길'과 시내권 단풍나무 가로수를 정비, 전국적인 단풍 명소길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 전북대와 내장산 단풍나무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

축하기 위한 학술분석과 현장조사를 마쳤다.

여기에 확보한 단풍나무의 생육환경, 분포조사, 유전형질 등을 분석한 DNA 정보를 미국 NCBI(미국국립생물정보센터)에 등록함으로써 학술 연구와 대량 증식을 위한 준비도 마쳤다.

김생기 시장은 "이번 용역으로 검증된 내장단풍 DNA 유전정보 등 학술용역 자료와 결과물은 올해부터 시에서 추진하는 '단풍랜드' 전시공간에 전시하겠다"며 "단풍테마 관광자원화 및 내장단풍 보호증식 관련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ss@

도산림박물관 제1종 전문박물관 등록

순창군 북흥면에 위치한 전북도 산림박물관이 최근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됐다.

전북도는 "순창군에 있는 전북도산림박물관이 최근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됐다"고 21일 밝혔다.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전문박물관 등록을 위해 야외전시장과 수장고 확장, 전시관 증축, 유물확보 등 시설물을 보완하고 박물관 운영관리 전문 학예연구사를 확보했다.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되면서 국비 지원과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국비보조금으로 인턴을 고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게 됐다.

지난 2002년 3월 개관한 전북도산림박물관은 부지 10만4280㎡에 전시공간 5355㎡(9개 코너)에 2095종 4627점의 다양한 전시물을 갖추고 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lee@

순창 짚풀로 친환경 바다숲 조성

수자원공 해초 용기 투입

군과 양식용기 생산 협약

친환경 바다숲 조성에 순창에서 짚풀로 만든 용기가 사용된다.

순창군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서해지사(이하 수자원공단)는 21일 군청에서 친환경 바다숲 조성 및 해초용기 제조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극대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순창군에서 생산한 짚을 이용한 해초용기를 구매하기로 했다.

군은 해초용기 제작을 위해 일자리사업자 46명을 선발해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해초양식 용기 1만 개를 생산할 계획이다.

공단은 해초씨앗을 짚풀로 된 용기에 흙과 함께 심은 후 바다속에 투입해 바다숲을 조성하게 된다.



순창지역 노인들이 지푸라기를 이용해 친환경 바다숲 조성에 사용할 해초용기를 만들고 있다.

조강현 서해지사장은 "바닷속에도 숲을 많이 조성시켜서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며 "순창군과 협약을 통해 바다숲 조성으로 관광컨텐츠 개발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lee@

김제 고교생들 인터넷 강의 무료 수강

스카이에듀 수강권 제공

김제지역 모든 고교생이 인터넷으로 유명 입시학원의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보게 됐다.

김제시랑정화재단은 "통학형 공립학원 '지평선학당'을 운영하는 스카이에듀가 지역 고교생에게 무료 동영상 강의 수강권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지역에 사는 고교생들은 인터넷으로 대학입시에 필요한 고등교육 관련 과정에 관한 동영상 강의를 공짜로 볼 수 있다.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고교생(초등학교나 중학교를 김제에서 마친 관외 고교생 포함)은 3월 6일까지 각 학교나 읍면동사무소에 수강권을 신청하면 된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뉴스 브리핑

전주 인라인롤러 경기장 주말 오전반 감습 개선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인라인 롤러 경기장이 주말 오전반 감습을 개설했다. 감습은 어린이 기준 주말반과 주 3회반, 주 2회반, 중급반 등으로 운영된다.

시설공단은 주 5일 수업에 맞춰 올해 인라인 롤러 교실을 기존 '주말 오후 감습반'에서 '주말 오

전반'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전주 인라인 롤러 경기장은 그동안 민간에 위탁 운영돼오다 지난 2010년 10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인수받아 환경정비와 고객 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다. 문의(063-239-2634)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군산시 시민 원하는 곳에 '배달강좌' 서비스

군산시는 시민이 원하는 곳에서 평생학습 강좌를 여는 '배달강좌' 서비스를 실시한다.

배달강좌는 평생학습을 받고자 하는 시민 10명 이상이 요청하면 원하는 과목의 강사를 무료로 파견해주는 서비스이다.

군산시내까지 강의를 받으려

오기 어려운 도시 외곽지역 시민을 위한 일종의 찾아가는 강좌로, 시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최대한 맞춰준다. 개설 강좌는 노인이나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체조, 노래교실, 웃음치료, 가족공예, 생활영어 등 19가지이다.

군산시내까지 강의를 받으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남원시·춘향장학재단 장학생 130명 선발

남원시와 춘향장학재단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명장 기능에 재능이 있는 학생 등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인재양성 장학생 130명을 선발한다.

선발인원은 ▲고등학생 120명 ▲남원명장 5명 ▲명문대 진학생 5명 등 130명이다. 신청자격은 16일 현재 남원 관내 고교에 진학 및 재학하는 학생과 남원지역 고

교를 졸업하고 서울 명문대에 진학하는 신입생이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www.namwon.go.kr)에 게시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추천서·성적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시청 교육체육과 인재양성팀으로 2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문의(063-620-6936)

/전북취재본부=백성기기자 bs8787@

정읍시 지난해 감사통해 예산 18억여원 절감

정읍시가 지난해 해 동안 계약심사·일상감사·사전설계 심사를 통해 18억6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정읍시에 따르면 총 384건 585억2000만원 사업에 대해

심사한 결과 계약심사 38건 19억8900만원, 일상감사 20건 1억6000만원, 사전 설계심사 84건 6800만원 등 총 142건 18억6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ss@